

남원의료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며 4주기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오진규 원장

이 제도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등 자발적 및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기본가치체계, 환자 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과 13개장, 9개 기준 512개 조사항목의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필수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오진규 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할을 다한 직원들의 성과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남원의료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신규영농조합, 백미 10kg 50포 기탁

김제시 청하면에 소재한 신규정미소대표 김기득은 1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양유미)를 방문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50포를 기탁했다.

김기득 신규정미소 대표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라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유미 청하면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는 신규정미소에 감사드리며 기부에 준 백미는 겨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면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날 기탁된 백미는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정미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0년도부터 매년 백미를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새집 추어탕, 춘향장학재단에 500만원 기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60여년 동안 수많은 국민이 찾는 맛집 추어탕 전문점 새집추어탕 서정심 대표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12월 18일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해왔다.

서정심 대표는 창업주의 기부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의지로 지난해 이어 7년째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최경식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새집은 우리 남원의 자랑인 전국 최고 추어 맛집으로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꼭 들려야 하는 명소가 됐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유경덴탈위크, 성금300만원 전달나눔 동참

(주)유경 덴탈위크(대표 유경)는 19일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오형석)에 기탁했다.

유경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지역 사회복지에 보탬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형석 요촌동장은 "따뜻한 선정을 보여주신 유경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경 덴탈위크는 요촌동 서암동에 위치한 치과 기공소로 21년째 믿음과 신뢰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읍 지사협의회, 취약계층 LED교체사업 추진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철, 곽동원 이하 지사협)는 지난 최근 관내 저소득층 11세대에 LED전등 교체사업을 실시했다.

LED 전등 교체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가구에서 사용 중인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안읍 지사협 특화사업 중 하나이다.

이번 LED 전등 교체사업은 진안읍 주민들을 위해 진안사랑봉사회(회장 안정기)가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진안사랑봉사회는 올해 2월부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LED전등 교체사업에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도민 삶의 질 높인데 더욱 헌신해 달라”

전북도, 업무성과 뛰어난 8개 부서 '혁신도정상' 시상

전북도는 19일 소풍의 날에 뛰어난 업무 성과로 전북을 빛낸 8개 부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그럼, 유튜브)을 수상했다.

문화유산과는 남원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전북의 가문 화유산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도

도는 새로운 전북 구현을 위해 혁신도정상을 분기별로 선정하며, 4분기에는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눈부신 성과를 낸 8개 부서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정보화정책과, 교육협력추진단이, 우수 부서에는 소통기획과, 문화유산과, 물물합관과, 전북테크노파크, 특례정책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각각 선정됐다.

정보화정책과는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및 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23~2027년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3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높게 인정을 받았다.

교육협력추진단은 2023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대학 10개 대학에 전북대가 선정되도록 적극 협력했고 향후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력양성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수상을 받은 소통기획과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정을 홍보하여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회에서 주최한 '2023 제9회 올해의 SNS' 대회에서 광역자치체 부문 4관왕(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북했다. 물물합관과과는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유실된 하천 복구를 위해 국비 1,698억 원을 확보했으며, 금강수계 공모사업도 참여, 4개사업에 29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운동 등 유치 성공에 총력으로 대응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한 부분이 인정받았다.

특례정책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전북특별자치도정부가 주관하는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업무성과와 우수사례를 다른 부서와 공유해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주시·전북은행 매칭 출연 특례보증 878억원을 실시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혁신을 선도했다.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포상금(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을 지급하며,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임상규 행정부처장은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업무성과와 우수사례를 다른 부서와 공유해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제21기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진안군협의회(회장 강용희)는 지난 18일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2023년 마지막 정기회의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등 주제로 영상 시청과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2023년 통일활동사업 평가 및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강용희 회장은 "21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자문위원들과 합심하여 더욱 활발한 통일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죽향동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남원시 죽향동 자치사랑방에서는 19일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 흥겨운 가락과 함께 공연 시작을 알리는 풍물을 비롯하여 한국무용, 웰빙댄스, 민요, 난타 등 6개팀이 갈고 닦은 실력과 끼를 아낌없이 발휘했다.

또한 공연에 신설된 보태미 아트 수강생들이 직접 그린 작품들을 현관 입구나 계단, 다과회장 등에 멋지게 전시하여 행사에 참석한 관객들의 눈을 한층 즐겁게 하였다.

1부 행사인 프로그램 발표회가 끝난 후 2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수강생,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다과회를 갖고 전시된 작품을 즐기며 자치사랑방 발전 방향에 대한 훈훈한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택 주민자치위원장은 "올 한해 여러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내내에도 주민



들에게 더욱 내실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 여성이용소방대, 경로당에 라면 등 전달

남원시 주천면은 면 여성이용소방대에서 지난 18일 라면 29박스과 달걀 46개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여성이용소방대원들이 직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여 그 의미가 더해져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스함이 스며들었다.

이길자 여성이용소방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주 주천면장은 "사랑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주천면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며 따뜻한 정이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읍 주민자치위, 진안사랑 장학금 100만원 전달

진안군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석근)는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박석근 위원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바탕으로 모은 장학기금 후원을 통해 남은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과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께서 모아주신 후원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 소중한 장학기금은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읍 주민자치위원회는 평소 진안사랑장학금 기탁뿐만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 기부,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나눔 봉사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 홍보대사 가수 방서희 양, 미스트롯3 본선 진출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방서희 양이 TV조선 트로트 오디션프로그램 '미스트롯3' 본선에 진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스트롯은 앞선 시즌에서 송가인, 양지은과 같은 대표 트로트 가수를 배출하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다가오는 21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되는 미스트롯3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72명이 참여한다. 이 중 정읍시 홍보대사이자 '정읍의 딸'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서희 양이 출연을 앞두고 있다.

기정서 시민소통실장은 "정읍의 보석인 방서희 양이 송가인과 양지은의 계보를 잇는 가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감동적인 매력과 뛰어난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헌혈 캠페인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19일 전라강영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을 끝으로 2023년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일곱 번째로 추진한 이번 지역 사회공헌활동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과 협조해 도내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인식 확산을 위해 재단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했다.

헌혈 참여자는 "위급상황 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혈액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잠깐의 시간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생명나눔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직원들이 동참해 겨울철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은 지난 4월부터 전주와 부안, 완주, 임실 등에서 총 7차례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정은성기자



김제 백구면 지사협, 취약계층 겨울 이불 나눔

김제시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정곤, 민간공동위원장 장승환)는 19일 관내 난방 취약 가구 43세대에 40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43채를 전달했다.

이날 나눔 행사는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추진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 명은 날이 추워질수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방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겨울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눴다.

장승환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지원한 물품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동절기 동안 난방 취약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